

에이즈 공포에 휩싸인 13억 중국인

비위생적인 매혈, 마약 범람, 성개방 풍조 등이 에이즈 확산 부추겨

1985년 에이즈 감염사례가 처음 보고된 중국에서 감염자가 60만명을 넘어섰다. 중국은 그동안 에이즈 확산 사실을 숨겨오다가 국무원 산하 위생부가 사태 심각성을 인식, 감염자 숫자를 발표한 것이다.

미국의 뉴욕 타임스지는 중국내 환자가 공식 발표보다 훨씬 많은 100만명을 넘는다고 보도했고, 일부 전문가는 150만명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유엔은 효과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향후 10년내 1000만명이 에이즈로 고통을 겪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감염 실태

인구 3000명의 가난한 농촌마을인 중부 허난(河南)성 상차이(上蔡)현 원러우(文樓)촌에서는 지난 2년간 90여명이 에이즈로 사망했다. 주민 1600여명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318명이 에이즈 보유자로 드러났다. 마을 전체가 에이즈 공포에 떨고 있다.

이 마을이 집단적으로 에이즈에 감염된 것은 비위생적인 매혈(賣血) 때문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1500여명이 피를 팔았고, 오염된 주사 바늘을 통해 에이즈가 무차별적으로 확산됐다. 중국 당국은 에이즈 환자중 5~8%가량이 매혈에 의해 감염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숫자가 10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한다.

초고속 경제성장과 함께 마약 범람, 성개방 풍조도 에이즈 확산에 한몫하고 있다. 중국 위생부 인다쿠이(殷大奎) 부부장은 마약 정맥주사를 통한 감염이 위난(隗南),

신장(新疆), 광시(廣西), 광둥(廣東), 쓰촨(四川)성 등에서 심각하다고 밝혔다.

문제는 빈곤에 찌든 시골 주민이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 때 수반되는 실사와 쇠약중세가 왜 생겼는지도 모른 채 쓰러지는데다 마을내 의료시설도 낙후돼 속수무책의 상황이 되풀이되는 점이다.

>> 빠른 확산과 대책

유엔아동기금(UNICEF)은 현재 중국 내 아동 에이즈 환자가 1000명에 불과하지만, 대응방법이 안일하거나 비효율적이면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에이즈에 대한 당국의 낮은 인식도 확산을 부추기는 것으로 지적된다. 보건 관계자는 지금까지 에이즈가 매춘이나 마약 복용 등과 관련돼 한정된 집단에서만 발생하는 것으로 치부했으나 빈부격차 확대에 따른 매혈과 인구이동 증가, 성적 자유의 확대에 의해 에이즈가 급속하게 확산될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다.

WTO가입, 올림픽 개최 등 개혁, 개방 물결을 타고 에이즈가 더욱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3억 명에 달하는 거대 인구와 500만 명에 이르는 매춘 여성, 더욱 열악해진 농촌 경제여건을 고려하면 중국에서 에이즈 확산은 엄청난 폭발력을 갖는다.

중국 정부는 이런 점을 의식, 최근 에이즈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국내 연도별 발생 현황

단위:명 (2001년 12월말 기준)

구분	계	'89-'93	'94	'95	'96	'97	'98	'99	'00	'01	비고
총감염자 (여자)	1,613 (197)	323 (34)	89 (11)	108 (19)	102 (12)	124 (17)	129 (18)	186 (26)	219 (25)	333 (35)	
감염자중 환자	239	16	11	14	22	33	35	34	32	42	
사망자 (환자)	344 (237)	42 (14)	13 (9)	21 (14)	33 (25)	36 (30)	46 (37)	43 (34)	52 (32)	58 (42)	

국내 연령별·성별 현황

발견당시 연령 ()는 사망자

연령별	계	%	남	여
계	1,613 (344)	%	1,416 (308)	197 (36)
0 - 9	10 (2)	0,6	9 (2)	1 (-)
10 - 19	26 (1)	1,6	22 (1)	4 (-)
20 - 29	452 (39)	28,0	386 (35)	66 (4)
30 - 39	584 (131)	36,2	518 (116)	66 (15)
40 - 49	313 (95)	19,4	276 (84)	37 (11)
50 - 59	167 (47)	10,4	150 (44)	17 (3)
60 이상	61 (29)	3,8	55 (26)	6 (3)

2001년 세계 신규 감염인수 (2001년 12월 현재)

